

2024. 5. 23.(목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

물류정책과장 이영훈 2133-4070

물류정책팀장 이정훈 2133-4072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5쪽

담당자 서지영 2133-4073

박채린 2133-4076

### 로봇 물류처리·드론 배송 실증까지...서울시, 첨단물류 상용화 시대 연다

- 서울시, '미래형 첨단 물류복합주유소'서 혁신 물류 서비스·월평균 배송 219건→1,039건 4.7배↑
- 물류로봇으로 입고~출고 전자동처리 빠른 물품 수령 가능, 배송시간 단축 등 효과
- 5. 22(수) 생활물류 드론 배송 실증 첫 선, 주유소 드론스테이션~청계산 수변공원 상공따라 배송
- 도심 내 하늘길 활용해 교통혼잡 완화 배송시간 단축 기대, 미래 생활 물류 경쟁력 선도

- 서울 도심 내 생활 물류 서비스가 첨단 기술과 함께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. 전국 최초 사례인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에서 전자동화 로봇 활용 물류 운영뿐만 아니라 드론 배송 실증까지 첫 선을 보이면서 미래형 첨단 물류가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-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'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' 운영을 시작한 이후 생활 물류 배송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 준공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주유소 내 오토스토어를 활용한 배송건수는 총 4,374건, 월평균으로는 875건을 기록하는 등 기대 이상의 배송 실적을 기록하면서 첨단물류 상용화 시대를 열고 있다.

- 서울시는 '22.11월 공모를 통해 서초구 소재 GS칼텍스의 내곡 주유소를 대상지로 선정하고, 로봇배송 등 자동화 물류시스템 등 시범운행을 거쳐 '23년 11월 23일부터 운영해왔다.
  - 서울 도심에 주유소를 거점으로 로봇 등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물류센터로 물류 로봇 시설을 활용해 모든 과정이 전자동화로 이뤄져서 도심 내 배송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해왔다.
  - 특히, '23년 배송실적은 월 219건이었으나, '24년은 월 평균 1,039건으로 4.7배 증가하였고, 화물입고도 '23년은 월 5,115개였으나, '24년은 월 평균 7,876개로 1.5배 증가하였다.
  - 당일배송 이(E)커머스·라이브 커머스의 등장으로 화장품, 약제 사리 등 소규모 생활물품 배송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.
- 특히 물류 로봇을 통해 물품의 입고-분류-출고 등 물류과정이 전자동으로 운영되는 만큼, 도심내 배송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뿐만아니라 이는 사람과 지게차 등의 이동을 위한 공간확보가 필수적이었던 기존 물류시설과 달리 공간활용성이 극대화되었다.
- 주유소 내 105.62㎡(32.01평)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물류시설인 오토스토어에는 6대의 로봇이 1,700여개의 상자(Bin)를 입출고하여 일일 3,600개 상자(빈)의 물량 처리가 가능하다.



- 또한, 주유소 내 물품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과 동시에 바로 출고되므로 배송시간이 단축되어 소비자는 보다 빠르게 주문물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 수요 파악 및 대형 화주사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점차 확보할 계획이다.
- 5월 22일 수요일에는 물류 드론배송도 실증한다. 드론은 과밀한 수도권 지역의 교통혼잡 문제와 이에 따른 배송시스템 둔화 우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로봇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첨단배송수단 중 하나이다.
  - 그간 드론배송 실증은 대부분 도서, 산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, 시는 생활 물류 정착을 위해 주유소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드론 비행테스트를 시행하는 등 상용화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.
  - 도심에서는 실증 사례가 적은 상황에서 서울시내 드론을 통한 배송 실증이 된다면 드론을 활용한 물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  - 첨단 복합물류시설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될 드론배송 실증은 내곡동 GS칼텍스(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210)를 거점, 청계산 수변공원을 배송지로 하여 5.22(수) 13:25부터 19:00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
-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“이번 실증을 통해 차세대 첨단물류 핵심기술로서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, 서울시 물류기술을 한층 더 높은 레벨로 도약시킬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〈첨단물류 복합주유소 전경〉



〈첨단물류 복합주유소 실내〉



〈 드론스테이션 〉



〈 드론배송 계획(안) 〉

